

무안군, 공무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회 실시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군 공무원 직원들의 직무 관련 기본 소양 강화와 청렴·친절 등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회를 실시했다.

최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3년 6월 공무원 직무교육'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응급 민원 대응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주제로 추진했다.

또한 최근 신안군 일원에서 추진한 '2023년 무안군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연수회'에서는 30여 명의 공무원 직원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스트레스에서 힐링해 군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청렴·친절교육, 힐링 테라피 교

육을 주 내용으로 공무원 직원들에게 기본이 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그동안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무안군은 9월에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12월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석한 공무원 직원은 "군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 연수회와 직무교육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군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우리 군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회를 통해 직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여러분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해,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재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군 공무원 직원들의 직무 관련 기본 소양 강화와 청렴·친절 등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회를 실시했다. /무안군 제공

함평 흑하량 상추차(茶) 일본 첫 수출길에 올라

속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량'으로 만든 상추차(茶)가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함평군은 "흑하량 상추차(茶) 일본 수출 상차식이 최근 동함평산단내 쉼터지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차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 흑하량 생산 농가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일본 수출은 함평군에서 지난 2020년 흑하량 상추를 처음 시범 재배한 지 4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흑하량 상추 가공품은 티백차를 비롯한 3종으로, 올해 초 일본 현지 시식과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자 테스트를 마쳤다.

군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프랑스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해 흑하량 상추 가공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의 군수는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강진군, '모두에(愛) 마을기업' 공모 선정

강진군 마을기업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대표 최향심)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모두에(愛)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두에(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제품 브랜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은 자연균으로 제조하는 독창적 장류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2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 습득을 지원해 마을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전향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강진 백금포로생태문화협동조합은 군동 지역 마을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박종욱 기자

전향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에 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을 위한 '2023년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장비·고도화 지원사업'에는 농업회사법인(대표 최향심)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용물포장기 등 시설장비와 장류 제조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사업 등에 사업비 1천 400만 원이 지원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신안, 인재육성 장학금 4억 4천만 원 지급

(재)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은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330명(우수대학생 137명, 내고장정학 34명, 저소득 장학생 87명, 만학도 18명, 다문화가정 25명, 낙도 장학생 8

명, 어가 및 저소득자녀 21명)에게 장학금 4억 4천만 원을 23일 지급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장학생을 전원 선발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적 여건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

재육성 장학금이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낙도 장학생 장학금 분야를 신설 지원했으며, 장학생 요건을 부모, 학생 주민등록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도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선발요건에 충족된다. /장흥근 기자

영암 치매전담요양원 도시근교형으로 가닥

영암군이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근교형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영암군은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도시형과 전원형을 절충한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업체는 설립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우승희 영암군수와 관련 부서 담당자 등에 알리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치매전담요양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이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기철 기자

목포시,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목포시가 4차산업 관련 청년 구직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AI 등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비 중 자기부담분 80프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

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목포

시청 스마트정보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gcvb5678@kore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확보했다. /박성태 기자

